

특별기획

<특별기획 집필자 프로필>

고모리 요이치(小森陽一)

도쿄 대학(東京大学) 교수. 전공은 일본 근대문학. 『역사인식과 소설-오에 겐자부로론(歴史認識と小説-大江健三郎論)』(2002), 『천황의 옥음방송(天皇の玉音放送)』(2003), 『무라카미 하루키론-『해변의 카프카』를 정독하다(村上春樹論-『海辺の Kafka』を精読する)』(2006)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.

친 강(秦剛)

북경(北京)일본학연구센터 조교수. 일본 근대문학 전공. 편저에 『미야자키 하야오를 읽어낸다(宮崎駿を読み解く)』(2004), 역서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(芥川龍之介)의 『지나유기(支那遊記)』(2007)가 있으며, 「상해소신문의 기사에서 중일문단교섭을 탐색하다(上海小新聞の一記事から中日文壇交渉を探る)」(2006) 등의 주요연구가 있다.

김춘미(金春美)

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겸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소장. 전공은 일본 근현대문학과 비교문학. 주요 연구활동에 「한국은 앞으로 일본의 근대문학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」(2000), 『다니자키 준이치로(谷崎潤一郎)』(1996), 『Encyclopedia of Diasporas』(2005), 『21세기 일본문학연구-근대문학과 번역의 역할』(2005) 등이 있다.

이 논문들은 2007년 3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 <동아시아에서 무라카미 하루키(村上春樹)를 읽다>에서 행해진 특별 강연내용이다.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요청에 의해 강연원고를 번역하여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특별기획하였다.